

만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The Expectations of Mothers and Teachers Regarding Development of
Three-Year-old Children

명지 전문대
강사 장은경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김희진

Myong Ji Junior College
Instructor : Chang, Eun Kyong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 : Park, EunHye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 : Kim, Heej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expectations of mothers and teachers regarding development of three-year-old children and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the expec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mothers held higher expectations than the teachers regarding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in all areas. Maternal expectations differed depending on the ages of the mothers and their children's birth order. Teaching experience with three-year-old children also made differences in the teacher's expectations. Implications to parent educ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provided.

I. 서론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두 기관으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을 들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

서의 모든 교육적 작용은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교육의 질과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교사가 아동의 바

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하는 역할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가정 역시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교육환경이다. 유아는 가족 구성원중 특히 어머니와 많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직접적이고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교사 역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아동의 성장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왔다.

1970년대부터 학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인지의 역할 즉, 사회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Miller, 1995). 최근 사회인지의 한 분야로서 아동 양육과 아동발달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인지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부모나 교사가 아동을 양육하거나 지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그들의 행동과 아동의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Miller, 1988).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와 부모의 역할 모두 아동과 상호 작용할 때의 행동적 측면에서만 연구되어져 왔고 인지적, 신념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Miller(1995)는 부모인지에 관한 최근 20년간의 문헌을 고찰한 후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인지의 요소로서 부모인지의 질(quality), 정확성(accuracy), 일치성(concordance)을 제시하였다. 부모인지의 질이란 부모가 가진 아동관이나 양육방식이 어느 정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아동양육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신념(예: 민주주의적 양육태도, 구성주의적 아동관)을 가진 부모의 신념의 질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정확성이란 부모가 아동의 성장, 발달, 능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일치성이란 아동양육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간의 아동에 대한 신념의 일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부부간, 부모-교사간의 아동관이나 아동발달의 과정, 아동양육 태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아 일치성을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간의 아동양육에 대한 신념이 일치하고, 아동에 대해 정확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신념의 질이 높을 때 아

동의 성장과 발달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념의 한 측면인 '기대(expectation)'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부모나 교사 각각의 기대나, 부모나 교사의 기대의 일치정도가 아동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Crandall, Dewey, Katkovshy, & Preston, 1964; Entwistle, & Hayduk, 1981; Parsons, Adler, Kaczala, 1982)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교사의 아동에 대한 신념은 유사하기보다는 다르다(김미자, 1993; 양설희, 1990; 정영숙, 1993; 정숙심, 1990; Katz, 1984; Restorla, 1991; Rescorla, et al., 1990)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일반유아에 대한 지식이 많고, 부모는 특수한 한 유아, 즉 자기자녀에 대한 지식이 많다(Miller, 1988). 특히 만 3세 유아의 경우, 부모들이 자신의 아동만 경험하고 다른 유아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녀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는지 살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과대평가 또는 과소 평가 할 가능성이 높고(Galinsky, 1987), 따라서 교사와의 기대수준이 크게 다를 수 있다. 또한 최근 부모들이 유아들에게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조기 학문기술 성취를 강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사와 부모의 기대가 다를 가능성이 더욱 많다. 그러나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유아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교사와 부모들간의 아동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가 정확하고 일치하여 일관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는 대부분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및 목표·내용(김미자, 1993; 이현진, 1994; 양설희, 1990; 정영숙, 1993; 정숙심, 1990; 정현아, 1994; Rescorla, 1991; Rescorla, Hyson, Hirsh-Pasek, & Cone, 1990; Knudsen-Lindauer, & Harris, 1989)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정연령 유아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기대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특히 만 3세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기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첫째, 현재 3세아 취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3세아를 대상으로한 연구가 부족하고 둘째,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3세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교사와 부모의 기대에

차이가 많을 수 있고, 셋째, 부모와 교사가 아동에 대해 일관성 있는 신념을 같은 것이 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중요하고, 넷째, 부모나 교사의 기대가 자체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신념의 기원(origins) 즉, 부모나 교사의 유아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념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요인들이 신념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부모나 교사의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연구되어 왔는데, 특히 문화(Goodnow, Cashmore, Cotton, & Knight, 1984; Rosenthal et al., 1988), 교육수준(Stevens, 1984), 부모 또는 교사로서의 경험(Sattler, Feldman & Bohanan, 1985), 연령(조복희, 1996; 한정자, 1985; Stevens, 1984), 자녀의 성별 또는 출생순위(김희진, 1995; 조복희, 1996; Entwistle & Hayduk, 1981; Holloway, Kashwagi, Hess, & Azuma, 1986)가 신념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문화 요인을 제외하고, 부모나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는 어떠한가?
2.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3세반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185명과 현재 3세반을 담임하고 있거나 담임한 경험이 있는 교사 148명이었다. 연구문제와 관련이 있는 어머니들의 특성은 <표 1>에 교사들의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특성

배경 변인	구 분	N(%)
연령	30세 이하	30(16.2)
	31 ~ 35세	116(62.7)
	36 ~ 40세	32(17.3)
	40세 이상	7(3.8)
	계	185(100.0)
만 3세 자녀의 형제 순위	장자녀(長子女) · 독자녀(獨子女)	119(64.3)
	차자녀(次子女)	66(35.7)
	계	185(100.0)
위험체의 3세반 경험 유무	유(有)	44(66.7)
	무(無)	22(33.3)
	계	66(100.0)

<표 2> 연구대상 교사의 특성

배경 변인	구 분	N(%)
학력	전문대학 이하 졸업	35(37.2)
	4년제 대학 졸업	79(53.3)
	대학원 졸업	14(9.5)
	계	148(100.0)
3세반 담임 경력	1년 미만	45(30.6)
	1년~3년	73(49.7)
	3년~5년	22(14.9)
	5년 이상	8(4.8)
	계	148(100.0)

2. 연구도구

3세아에 대한 어머니들과 교사들의 기대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아관찰척도』(교육부, 1995)를 지시문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어머니와 교사 모두에게 만 3세의 일반적인 유아가 1년동안의 만 3세과정을 마친후 달성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각생활영역별 발달의 정도를 각 항목별로 1~4단계중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유아관찰척도』는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팀구생활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가 유치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각 유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만 3세~5세 유아의 발달 정도를 4단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각영역별로 8~9문항씩 총 42문항으

로 구성된 이 도구는 구체적인 행동기준이 서술되어 있는 기술평정척도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응답자가 각 단계에 제시된 행동적 기준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1, 2, 3, 4 단계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평정한 단계에 따라 1점, 2점, 3점, 4점씩 주어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도구 전체의 내적신뢰도(Chronbach's alpha)는 .95였고, 각 영역별 신뢰도도 .80(사회생활)-.86(탐구생활)으로 높았다.

3. 연구절차

연구 도구의 문제점과 소요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대상이 아닌 유치원의 3세반 어머니 20인과 담임교사 10인을 직접 방문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이 유아의 현재의 발달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 3세의 일반적인 유아가 1년동안의 만 3세과정을 마친후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각생활영역별 발달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응답자에게 연구 목적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항의 서술어미가 미래 시제(~할 수 있을 것이다)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각 문항의 시제를 미래형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예비조사 대상 어머니들로부터 내용이 어렵고 어휘가 생소하다는 반응이 나온 3개 문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과 예를 첨가하였고, 부정문(~할 수 없을 것이다)에는 '아직'이라는 말을 첨가하여 발달상 퇴보의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교육명부(한국교육신문사, 1996)중 유치원 명부에서 150유치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전화를 통하여 기관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하고, 3세 학급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이과정에서 기관장이 허락을 하지 않거나 3세학급이 없는 64개의 유치원이 제외되었다. 나머지 86개 유치원에서 3세학급의 수와 3세반을 담임한 경험이 있는 교사의 수를 파악하였다. 교사용 설문지는 현재 3세학급을 담임하고 있거나 담임한 경험이 있는 교사에게 모두 발송하

였다. 따라서 각 유치원당 1-3부가 발송되었다. 어머니용 설문지는 3세반 각 학급당 2-3부씩을 보낸 후, 교사가 무작위로 2-3명의 유아를 선정하여 그 유아들의 어머니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각 유치원에 어머니용 설문지를 2-3부만 보낸 것은 교사용 설문지를 배포한 유치원의 수와 어머니용 설문지를 배포한 유치원의 수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다.

설문지는 각 유치원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였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반송봉투와 우표, 원장 선생님께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동봉하였으며, 본 조사기간의 중간 무렵에 전화로 재차 협조 요청을 부탁하였다. 회수는 반송봉투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어머니용 설문지는 배부된 220부중 185부가 회수되어 84%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교사용 설문지는 배부된 200부중 148부가 회수되어 74%의 회수율을 보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들과 교사들간의 기대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들의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만 3세아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는 건강생활영역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언어, 탐구, 표현, 사회생활 영역순으로 나타났으나 각 영역별 차

<표 3>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대상	어머니(N=185)		교사(N=148)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77	0.75	2.43	0.60	7.61***
건강생활	2.86	0.66	2.46	0.63	8.19***
사회생활	2.72	0.72	2.49	0.55	4.94**
표현생활	2.73	0.70	2.61	0.52	2.45*
언어생활	2.78	0.77	2.45	0.69	6.10**
탐구생활	2.76	0.90	2.13	0.70	11.67***

* p <.05 ** p <.01 *** p <.001

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세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기대수준은 표현생활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 건강, 언어생활영역이 유사한 수준이었고, 탐구생활영역이 가장 낮았다.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수준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발달 전체와 모든 생활영역에서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교사의 기대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탐구생활영역에서 기대수준의 차이가 많았다(〈표 3〉참조).

2.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어머니의 기대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어머니의 기대수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연령, 자녀의 형제순위, 윗형제의 3세반 경험 유무가 연구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기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사후(Scheffé)검증을 실시해본 결과 연령이 30세 이하인 어머니들($M=2.97$)이 40세 이상의 어머니들($M=2.53$)보다 3세아 발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았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각 생활 영역별로 기대수준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강생활영역($p<.01$), 사회생활영역($p<.05$), 표현생활영역($p<.05$), 언어생활영역($p<.01$)에서만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기대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탐구생활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Scheffé)검증을 실시해본 결과 건강생활영역과 언어생활영역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30세 이하인 어머니들이 40세 이상인 어머니들보다 3세아 발달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생활영역과 표현생활영역에서도 연령이 30세 이하인 어머니들이 36~40세의 어머니들보다 기대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형제 순위와 손위 자녀의 3세반 경험 유무에 따라 어머니의 기대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형제 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기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표 5〉 참조) 손위자녀의 3세반 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따르면 자녀의 형제 순위에 따라 전체와 언어생활영역, 탐구생활영역에서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세반에 다니는 자녀가 장자녀이거나 독자녀인 어머니들이 차자녀의 어머니들보다 전체, 언어생활영역과 탐구생활영역에서 기대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사의 기대수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교사의 학력과 3세반 담임경력이 연구

〈표 4〉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3세아 발달에 대한 기대수준

연령 영역	30세 이하		31~35세		36~40세		40세 이상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97 ^a	0.65	2.78	0.78	2.61	0.95	2.53 ^a	0.71	4.22**
건강생활	3.07 ^a	0.68	2.84	0.55	2.77	0.62	2.43 ^a	0.92	4.7**
사회생활	2.88 ^a	0.97	2.75	0.60	2.53 ^a	0.71	2.59	0.95	3.2*
표현생활	2.97 ^a	0.65	2.72	0.61	2.57 ^a	0.85	2.64	1.01	3.7*
언어생활	2.98 ^a	0.77	2.80	0.62	2.59	1.03	2.46 ^a	1.22	4.05**
탐구생활	2.93	0.85	2.78	0.78	2.56	1.08	2.59	1.03	2.67

참고: * $p<.05$ ** $p<.01$

^a 사후검증 결과 차이가 있는 연령집단

〈표 5〉 자녀의 형제 순위에 따른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

영역	장자녀(長子女)· 독자녀(獨子女)		차자녀(次子女)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4	0.64	2.65	0.56	2.09**
건강생활	2.90	0.68	2.82	0.62	1.41
사회생활	2.78	0.77	2.66	0.57	1.65
표현생활	2.78	0.75	2.68	0.61	1.58
언어생활	2.88	0.67	2.62	0.53	2.23**
탐구생활	2.85	0.66	2.54	0.69	2.56**

** p<.01

되었다. 교사의 학력에 따라 3세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나 교사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3세반 담임 경력에 따라 3세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교사의 3세반 담임 경력에 따라 교사의 기대수준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교사의 3세반 담임 경력에 따라 각 생활영역별로 기대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영역별로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건강생활영역($p<.05$)과 표현생활영역($p<.05$)에서 3세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기대 수준이 3세반 담임 경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Scheffé)검증을 실시해본 결과 건강생활영역에서는 3세반 담임경력이 1년 미만인 교사들이 1~3년 경력의 교사들보다 3세아 발달에 대한 기대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생활영역에서는 3세반 담임경력이 1~3년인 교사들이 3~5년 경력의 교사들보다 3세아 발달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목적은 만 3세 유아가 일년동안 만 3세아를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각 생활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발달을 이를 지에 대한 어머니들과 교사의 기대를 비교해보고 이들의 기대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수준은 평균 2.77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생활영역간의 차이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면, 건강생활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언어, 탐구, 표현, 사회생활영역 순으로 나타났으나 영역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인 영역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가장 높았는데, 건강생활영역에 대한 기대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는 Rescorla(1991)의 연구와 일치

〈표 6〉 교사의 3세반 담임 경력에 따른 3세아 발달에 대한 기대수준

영역	0~1년		1~3년		3~5년		5년이상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33	0.53	2.50	0.50	2.49	0.51	2.27	0.43	2.74*
건강생활	2.32 ^a	0.57	2.54 ^a	0.59	2.53	0.53	2.41	0.53	3.10*
사회생활	2.40	0.52	2.57	0.55	2.52	0.50	2.32	0.20	2.42
표현생활	2.53	0.51	2.69 ^a	0.46	2.64 ^a	0.56	2.27	0.43	3.21*
언어생활	2.39	0.88	2.51	0.50	2.53	0.63	2.21	1.12	1.49
탐구생활	2.06	0.81	2.18	0.62	2.14	0.66	2.07	0.42	0.75

참고: * $p<.05$ ** $p<.01$

^a 사후검증 결과 차이가 있는 경력 집단

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자녀수의 감소로 부모가 자녀의 신체발달이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고, 특히 대상이 만 3세의 어린 유아이므로 건강과 안전생활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둘째, 위의 해석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어머니들이 유아의 신체발달, 건강과 안전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1년의 교육을 받은 후 많은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언어생활영역과 탐구생활영역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가 높은 것은 부모들이 자녀의 지적 능력의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이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글이나 숫자를 미리 가르치기를 기대하는 반응을 높게 나타낸다는 이경자(1982)의 연구, 문자에 대한 관심은 만 3세 유아의 어머니에게서도 높게 나타난다는 박혜정(1988)의 연구, 유아의 읽기·쓰기 능력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은 유아의 연령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난다는 정영숙(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사회생활영역에서의 기대수준이 높은 것도 만 3, 4세의 유아의 부모들은 유치원에서의 사회성 교육을 가장 원한다는 양설희(1990)의 연구와 일치한다.

3세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기대수준은 표현생활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생활영역, 건강생활영역, 언어생활영역 순이었으며 탐구생활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기대를 측정했고 교육부(1995) 자료에 보고된 결과는 만 3세 유아의 실제 발달정도 교사가 평정한 것이고 평정시기도 학기말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교육부(1995) 자료에 제시된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나타낸 교사의 기대와 교육부 자료에 제시된 교사의 만 3세아동 평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하다. 첫째, 각 생활영역별 평균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체 평균은 본연구에서는 2.4점이

었고 교육부 자료에는 2.6점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한 본연구에서는 건강생활영역의 평균이 2.7점, 사회생활영역의 평균이 2.5, 표현생활영역의 평균이 2.6이었고, 교육부 자료에는 2.5, 2.5, 2.7의 순으로 제시되어 있다. 둘째, 각 영역별 순서도 유사했다. 두 연구 모두에서 탐구생활영역의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본연구에서는 표현생활영역이 교육부자료에서는 언어와 표현생활영역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표현생활영역에서 교사의 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발적·창의적으로 표현하면서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감을 갖는데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생활영역에서 유아의 발달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많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양설희(1990)는 연구결과에서 교사들은 유아의 연령의 구분 없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성 교육에 우선 순위를 둔다고 하였으며, Rescorla(1991)도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현진(1994)도 교사들은 전체적으로 사회영역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표현생활영역과 사회생활영역에서 교사의 기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교사들은 유아의 정서 함양과 사회성 계발에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장영숙(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수준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생활영역에서 어머니의 기대가 교사의 기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이 아동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지만 특히 어머니들한테서 이런 경향을 가장 강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Miller(1995)와 Katz(1984) 주장과 일치한다. 이는 교사들은 유아들의 발달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하는데 비해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의 능력에 대해 모든 면에서 우월하게 인식하는 주관적이고 편향된 관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

반적으로 연령이 적은 어머니들이 연령이 많은 어머니들 보다 3세아 발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어머니들 특히 젊은 어머니들이 유아들의 능력에 대해 과대 평가한다는 Miller(1988)와 Miller와 Davis(1992)의 연구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아마도 저 연령층 어머니들이 고 연령층 어머니들에 비하여 자녀 양육기간도 짧고 양육경험도 적어 유아의 발달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과 지식 또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아의 발달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는 자녀의 형제 순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형제 순위가 장자녀이거나 독자녀인 경우에 언어생활 영역과 탐구생활영역에서 차자녀인 경우보다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언어적 능력과 학업 능력에 있어서 어머니는 장자녀가 차자녀보다 빨리 발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는 윤영애(1988)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며, 부모들이 장자녀에게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자녀는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갖고 있으며 차자녀에 비해 부모와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으므로 언어발달이 빠르다고 주장한 Altus(1966)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3세아 발달에 대한 교사의 기대는 교사의 학력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으나 3세반 담임 경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세반 담임 경력이 1~3년인 교사들의 기대수준이 건강생활영역에서는 1년 미만의 교사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표현생활영역에서는 3~5년의 경력교사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1~3년 정도의 교육경력은 교사발달단계의 강화기에 속하는 시기로서 교사로 하여금 이론과 실제의 접목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는 시기이므로(Katz, 1985) 유아의 교육에 대해서도 높은 의욕과 기대를 갖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는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1년~3년 정도의 경력의 교사가 다른 경력의 교사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5개 교육내용 영역에 대한 점

수가 높게 나타났다는 이현진(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해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들과 교사들간의 기대수준이 다르고 이들의 기대수준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어머니의 기대수준이 교사의 기대수준보다 높은 것은 자녀의 첫 교육 경험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와 열의가 높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유아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정도가 서로 비슷할수록 일관성 있는 교육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으므로 유아교육기관은 부모교육이나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유아의 발달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 3세 유아에 대해서도 어머니들이 탐구생활영역에서 교사에 비하여 매우 높은 기대수준을 보인 것은, 학문적 기술 지향과 조기 특기 / 과외 교육이 과열되고 있는 현상이 연령이 어린 유아의 어머니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치원은 부모교육이나 부모참여를 통해 유아교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개념 인식 및 이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 유치원의 만 3세반 어머니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1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된 것으로 연구결과를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좀 더 광범위한 지역과 다양한 유아교육기관(예:어린이집)의 만 3세 유아의 어머니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조사시기에 따라 연구 대상 집단의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연구대상에게 1년에 2회(예: 1학기 중간, 2학기 중간)정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는 유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인으로 유아에 대한 부모의 기대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기대수준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

히, 현대의 유아교육은 아버지의 유아교육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아버지를 또한 과거와는 달리 자녀 교육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아의 발달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수준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교육부(1995).『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한 유아 관찰척도』. 서울: 교육부.
- 2) 김미자(1993). 유치원 교육목표에 대한 부모, 교사, 원장의 견해 비교 - 경기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3) 김희진(1995).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어머니들의 신념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15(2), 5-22.
- 4) 박혜정(1988). 연구보고『취학전 유아의 문자 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88-130.
- 5) 양설희(1990). 유치원 교육과정의 체계 및 그 운영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 광주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6) 윤영애(1988).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른 어머니의 기대수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7) 이경자(1982).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8) 이현진(1994). 유치원 교육내용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9) 정영숙(1990). 부모의 읽기·쓰기 지도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0) 장영옥(1993).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유치원 교사, 부모, 및 국민학교 1학년 교사의 견해 비교 - 대구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1) 정숙심(1990). 유아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에 대한 연구-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2) 조복희(1996).『유아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13) 정현아(1994). 유아의 기본생활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4) 한국교육신문사(1996).『한국교육연감』. 별책부록 1996 교육명부
- 15) 한정자(1985). 유치원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6) Altus, W.(1966). Birth order and its sequences. *Science*, 151, 44-49.
- 17) Crandall, V., Dewey, R., Katkovsky, W. & Preston, A.(1964). Parents' attitudes and behaviors and grade-school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4, 53-66.
- 18) Entwistle, D., & Hayduk, L.(1981). Academic expectations and the school attainment of young children. *Sociology of Education*, 54, 34-50.
- 19) Galinsky, E.(1987).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Addison-Wesley.
- 20) Goodnow, J., Cashmore, J., Cotton, S., & Knight, R.(1984). Mothers' developmental timetables in two cultural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9, 193-205.
- 21) Holloway, S., Kashwagi, K., Hess, R., & Azuma, H.(1986). Causal attributions by Japanese and American mothers and children about performance in mat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1, 269-286.
- 22) Katz, L.(1984). *More Talks with Teachers*. ERIC Clearinghouse on Elementary and Childhood Education, Urbana, IL 6180, 1-26.
- 23) Katz, L. G.(1985). Research currents: Teachers as learners. *Language Arts*, 62(7), 778-782.
- 24) Knudsen-Lindauer, S., & Harris, K.(1989). Priorities for kindergarten Curricula: Views of parents and teachers. *Journal of Research in*

- Childhood Education*, 4(1), 51-61.
- 25) Miller, S.(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26) Miller, S.(1995). Parents' attributions for their children's behavior. *Child Development*, 66, 1557-1584
 - 27) Miller, S., & Davis, T.(1992). Mothers' beliefs about children: A comparative study of mothers, children, teacher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63, 1251- 1265.
 - 28) Parsons, J., Adler, T., & Kaczala, C.(1982). Socialization of achievement attitudes & beliefs: Parent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53, 310-321.
 - 29) Rescorla, L.(1991). Parent and teacher attitudes about early academics. In L. Rescorla, M. C. Hyson, & K. Hirsh-Pasek(Eds.), *Academic instruction in early children: Challenge or pressure?*(pp. 13-19). New York: Jossey-Bass.
 - 30) Rescorla, L. Hyson, M. C. Hirsh-Pasek, K., & Cone, J.(1990). Academic expectation in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 A Psychometric study of the educational attitude scale.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 165-184.
 - 31) Rosenthal, D., & Bornholm, L.(1988). Expectations about development in Greek- and Anglo-Australian families. *Journal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19, 19-34.
 - 32) Sattler, J., Feldman, J., & Bohanan, A.(1985). Parental estimates of child's receptive vocabulary. *Psychology in the Schools*, 22, 303-307.
 - 33) Stevens, J.(1984). A black grandmothers' and black adolescent mothers' knowledge about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017-1025.